# 고령층 소비성향 선진국에 비해 낮아

## 한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에서 '고령화와 소비 주제' 연구 통해 분석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8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에서 '고령화와 소비' 주제의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 성향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백서는 한은이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실은 것으로 15개 주제의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가계는 소득이 많은 장년 시기에 저축을 늘리고, 노년에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장년층을 상회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백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60대의 경우 지난 2003년 78.2%에서 2015년 68.1%로 10.1%p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76.4%에서 73.1%로 3.3%p 감소에 그쳤다.

실제 고령층의 가구당(2인 이상) 소비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 연평균 21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3100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소득 불안과 노후자금 부족 등으로 지갑을 닫는 고령층이 많은 것이다.

다행인 점은 앞으로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금소득 증가 등으로 은퇴 이후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이 개선되고, 기대수명 연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저축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소비의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기여율이 2011~2015년 중 38.5%에서 2016 ~2020년 중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와 장기간 경기부진을 거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상당폭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금소득 증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으로 노후 불안이 완화되면서 소비성향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소비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확충 ▲보유자산 유동화 활성화 ▲노후 연금수급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제시됐다.

한은은 "고령층이 국민경제의 주요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소비 성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래 소득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5년간 억대 연봉자 23만명↑ 최저임금 근로자 33만명↑

##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나타나

최근 5년간 억대 연봉자들이 23만명 늘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33만명 늘어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역대 연봉자들의 전체 근로소득 점유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 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돼 있다"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8월 신설 법인 전년 3% 증가… 서비스업은 감소

지난달 신설된 법인이 8459개를 기록해 3%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8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8459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 6월 2.7%, 7월 0.8%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다. 부문별로는 수출증가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이 138개 늘어 7.9%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386개가 줄어 7.1% 감소했다. 서비스업 법인 설립의 감소세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모바일기기 고(高)사양화, 주요품목 단가 상승, 선진국 경기 회복 등으로 기계·금속,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와 관련된 업종의 법인 창업이 증가했고 특히 최근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의 경우 377개의 법인이 설립돼 299.2%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가정용품도매업(-26.2%), 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22.8%) 등의 감소 영향으로 도소매업(-18.1%) 법인 창업이 감소했지만 사업시설지원및관리서비스업(12.7%), 교육서비스업(26.4%) 등은 증가하면서 전월(-9.1%)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대표자 연령 기준으로는 40대(35.9%), 50대(27.5%), 30대(20.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49개 증가하고 남성이 106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7개, 경기 2183개 등의 순으로 설립됐고 세종과 경북은 각각 41.9%, 20.1%씩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신설법인 수는 총 6만61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추석, 스미싱 유형·예방법 공개

## 후후앤컴퍼니, "발신자 불분명한 문자 항상 의심해야"

스팸차단앱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는 추석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스미싱 유형 과 예방법을 28일 공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을 경우를 대비해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해둬야 한다. URL을 클릭한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 불명의 앱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후후컴퍼니에 따르면 추석 연휴 명절 대목을 노리는 스미싱 범죄 유형은 ▲택배 ▲상품권·항공권 판매 ▲추석 급전·소액대출 등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대다수다.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택배 물량으로 '택배 배송조회', '물품 반송확인' 등과 같은 택배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스미싱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또한 추석 선물로 많이 애용되는 '상품권'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거나 긴 연휴에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항공권 잔여석 판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URL을 메시지로 보내 클릭하도록 해 결제를 유도한다.

후후앤컴퍼니 관계자는 "스미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하림, AI 방역데이 지정… 농가대상 일제 소독 나서

글로벌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문용 대표이사)이 AI 예방을 위해 'AI 방역데이'를 지정해 계열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경북 영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의심축 신고와 민족 대이동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에 긴급 대책을 지시하고 전북도와 익산시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사전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28일 ㈜하림은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50여명과 전북도, 익산시, 축산진흥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련자 10여명이 참여해 익산시 오산면에 위치한 소향농장을 찾아 AI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가졌다.

㈜하림은 이날 연막기와 분무 소독기를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내·외부 소독과 함께 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뿌리는 등 외부 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하림은 또 내달 1일부터 AI 예방 특별방역 조직위(위원장 정문성 부사장)를 구성하고 방역 매뉴얼에 따라 농장 운영상태 점검과 외부인 출입차단,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 소독 외에 'AI 방역 데이'를 지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자체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